

무왕[武王]

백제 땅에 미륵의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하다

미상 ~ 641년(무왕 42)



무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무왕(武王)은 백제의 제30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00년~641년이다. 또한 서동설화의 주인공이다. 정치조직을 개편하고, 왕흥사와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정치·사상적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대외적으로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와 수·당, 왜와 화친과 견제의 적절한 국제관계를 유지했다.

2 무왕의 즉위과정과 서동설화

무왕의 성은 부여(夫餘), 이름은 장(璋)이고, 여장(餘璋)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에는 무강왕(武康王)·헌병왕(獻丙王)이라는 이칭도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는 제29대 법왕이다. 하지만 서동설화에서는 어머니가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무왕의 부인은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이다.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에는 무왕의 부인이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로 나와 있어 서동요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설화적 구성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600년(법왕 2)에 죽자 왕위에 올라, 641년까지 42년간 백제를 다스렸다.

무왕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서동설화가 가장 자세하다. 어머니는 서울의 남지(南池)가에 집을 짓고 살던 과부였는데,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무왕을 낳았다. 항상 마를 캐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이름을 서동(藎童)이라 하였다. 관련사료 서동은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관련사료 서동은 마를 캐던 곳에 쌓여 있던 황금을 지명법사(知命法師)의 도움으로 진평왕에게 보냈다. 진평왕은 서동의 신통함을 특별히 여겨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인심을 얻은 서동이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물론 서동설화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 연못의 용은 법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가난한 어머니는 그녀가 무왕의 정비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용은 몰락한 왕족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무왕은 법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주